

KB 주식시황

[50년 사이클의 역사] 연간전망 요약 #3. 기술 패권경쟁 (우주항공)

주식전략

2023년 11월 13일

연간전망 요약: 기술 패권경쟁을 위한 투자의 확대 → 우주항공

1) '공급망 재편 + 기술 패권경쟁'을 위한 투자의 확대: 설비투자 + R&D투자

탈세계화 시대에는 ① 공급망 재편을 위한 설비투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② 기술 패권경쟁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된다 <그림 1>. 설비투자의 확대는 공급망을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물이고, R&D 투자는 기술의 우위를 통해 여러가지 이점을 가지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과거 탈세계화 시대를 보면, 항상 설비투자와 함께 R&D 투자도 함께 증가했다 (순서도 참고: 설비투자 증가율이 먼저 높아지고, 그 후에 R&D 투자가 증가) <그림 1>.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 R&D 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하는 기관: DARPA

DARPA (미국 고등연구계획국)를 참고하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의 기술 패권경쟁의 산물로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술 패권경쟁 흐름 속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계기로, 미국은 1958년에 DARPA를 설립). 둘째, 기술 패권경쟁의 성격을 갖는 기관이 마침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예산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셋째, DARPA 예산은 구체적인 항목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D 데이터를 분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DARPA의 예산은 '기술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도출하는 아이디어도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그 결과 2023년 전망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을, 이번 2024년 전망에서는 '우주항공'을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그림 3>.

투자 아이디어: 이번 자료는 '③ 우주항공'

(대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자 아이디어

긴축의 부정적 영향 고려

• 투자 아이디어 ①: 배당주 (리스크 관리)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

• 투자 아이디어 ①: 보험주 (배당주 중)
• 투자 아이디어 ②: 반도체 (정책 변화 없음 것)

공급망 재편

• 투자 아이디어 ②: 반도체 고도화 (후공정 패키징)
• 투자 아이디어 ③: 우주항공중동 (사우디)의
투자가 만들 기회

• 투자 아이디어 ④: 게임주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력

• 투자 아이디어 ⑤: AI의 확장 (AI on Device)

자료: KB증권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지원: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지원

1)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몇 가지 이견으로 인해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이견사항들이 점차 합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R&D 기능에 대한 의견 합의만 이뤄진다면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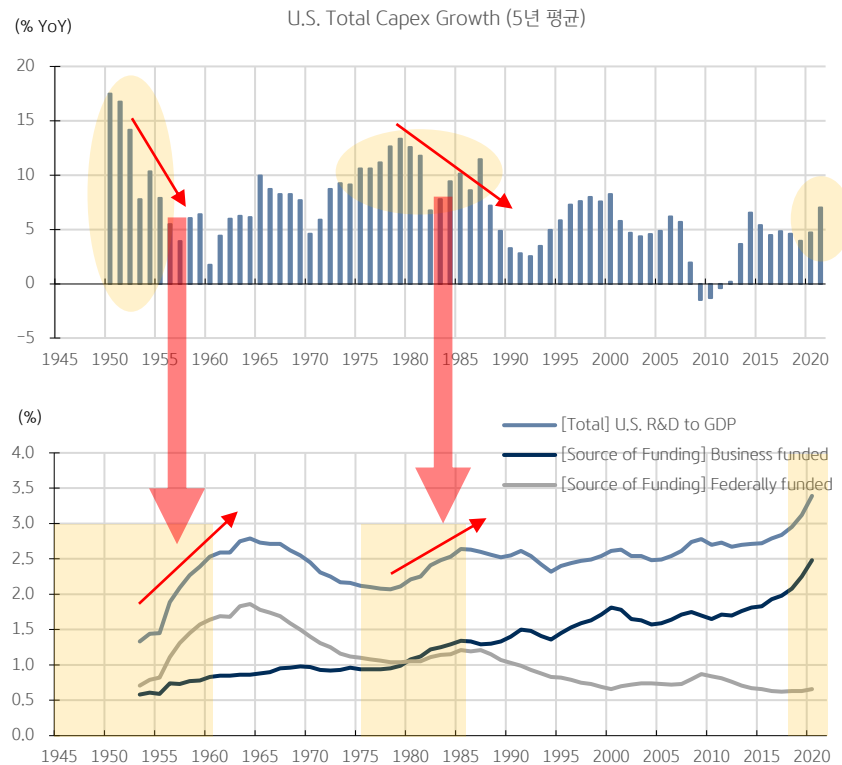
2) 해외 국가들과의 우주항공 분야 협력

해외 여러 국가들과의 우주항공 분야 협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1월 8일에는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으며, 같은 날 '한-이탈리아 우주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해서도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표 2>. 그리고 이러한 협력이 본격화하는 데에는 '우주항공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3) 달 탐사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와 그 후속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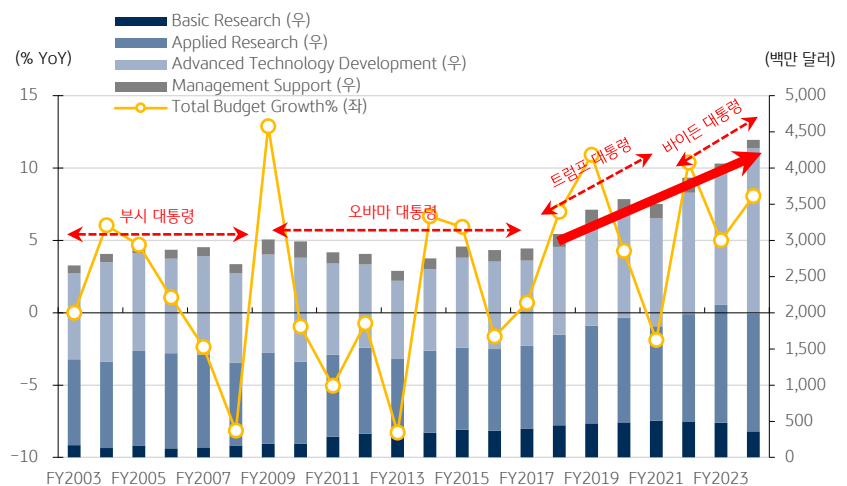
10월 30일에는 달 탐사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이 통과됐는데, 그 규모가 5,303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정책 지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① 추진시스템과 연착륙을 위한 핵심기술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항법시스템 등) 등의 국산화와 ②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등이다 <표 2 - 빨간색 표시한 부분 확인>. 2023년 4분기부터 본격화하는 정책 지원이 2024년에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투자의 시대' 확산: CAPEX →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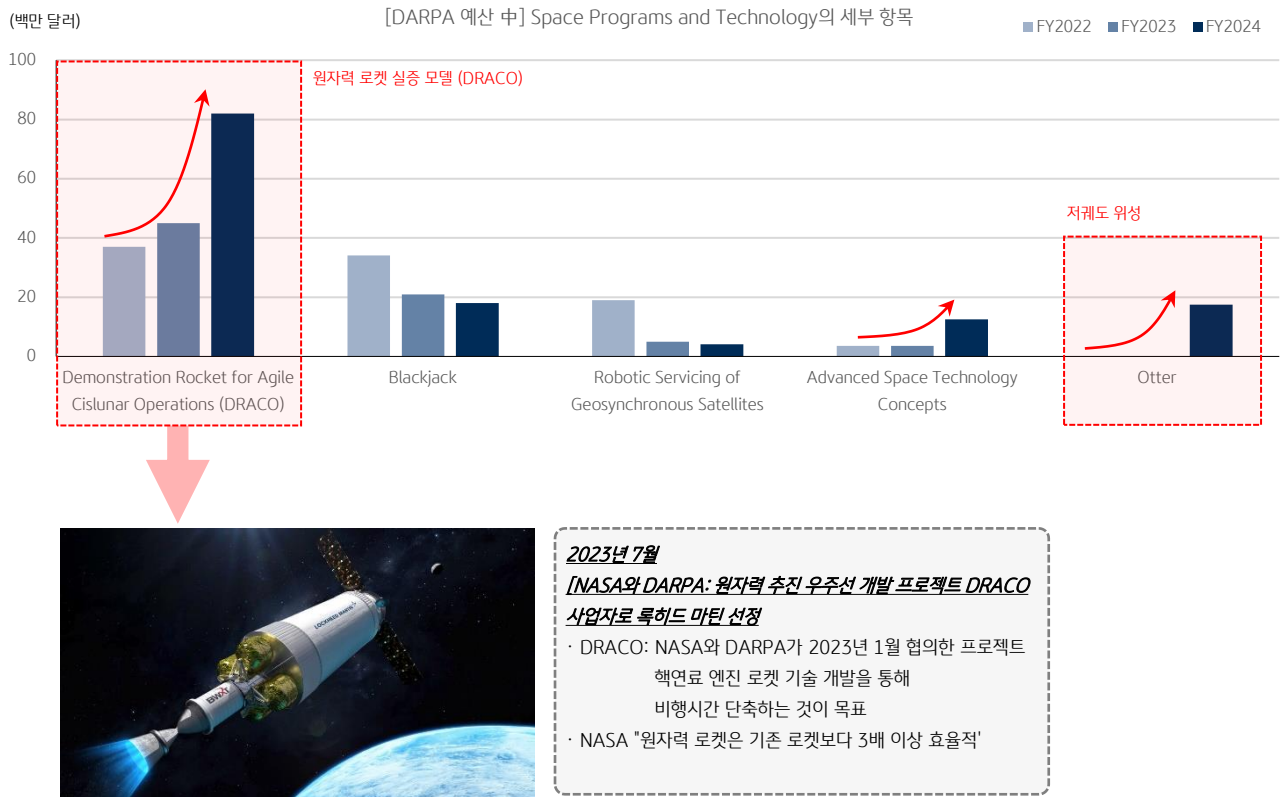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세인트루이스 연은, KB증권

그림 2.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 DARPA 예산: 트럼프 대통령때부터 증가



자료: DARPA, KB증권

그림 3. DARPA 세부 예산 중 예산 증가율 1위 (Space Programs and Technology): ① 저궤도 위성, ② 원자력 로켓



자료: DARPA, KB증권

표 1.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현황

구분	세부 내용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차관급)으로 두는 것에 합의 · 우주 항공청 청장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임명 불허 (우주항공청 직원은 가능) · 비상설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 (부위원장은 별도 민간 전문가 선임해 감독 권한 부여)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 우주항공청의 R&D 수행 여부 · ‘우주 항공청의 연구개발 직접 수행은 청의 핵심 기능’ vs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역할 충돌 우려’ → 10월 27일 과기부 장관, 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항우연·천문연에 대한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동의 (역할 충돌 우려 해소)

자료: KB증권

표 2.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현황

일자	협력 국가	세부내용
10월 30일	한국 (자체 추진)	<p>[달 탐사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 통과: 개발기간 10년 (2024~2033년), 총 사업비 5,303.4억원 · 사업 내용: 독자적 달 착륙 및 표면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1.8톤급 달 착륙선을 독자개발 후 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발사하여 달 표면 연착륙 및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R&D)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사업 착수 → 2028년 착륙선 설계 완료 → 2031년 달 연착륙 검증선 발사 및 연착륙 임무 수행 →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연착륙 및 과학기술임무 수행 · 한국의 차세대발사체로 자력발사하는 것을 목표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추진시스템 국산화 ② 연착륙을 위한 핵심기술 (장애물 탐지 및 회피 기술, 항법시스템 등) 등을 국산화 · 향후 정책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하여 확정할 예정 (시기는 언급 X) ② 우주탐사 로드맵을 기반으로, 달 착륙선 탑재체의 공모 추진할 계획 → 2025년 초까지 탑재체를 선정하여 별도사업으로 탑재체 개발을 추진할 계획
10월 31일	한국 (자체 행사)	<p>[우주·항공 융합보안 세미나] → 우주·항공 분야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주·항공 산업과 정책 동향 ② 우주·항공산업과 정보보호
11월 3일	한국 (자체 추진)	<p>[한국군의 첫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30일: 정찰위성 1호 발사 예정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 이용) · ‘425사업’: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에 대한 감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목표: 2025년까지 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 (EO)·적외선 (IR)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 ② 현황: 11월 30일 발표 예정인 정찰위성 1호 - 전자광학 (EO)·적외선 (IR) 장비 탑재 위성 ③ 향후 계획: ‘2호기’는 2024년 상반기에 발사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기 개발을 통해: 고속기동이 가능한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을 확보 - SAR 위성 4기 개발을 통해: SAR 센서 제어 및 송수신장치를 국산화
11월 8일	미국	<p>[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2월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와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산업 협력에 대한 후속조치 · 양국의 정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의 계획 소개 ② 미국: 우주산업, 우주탐사 등 우주 분야에 관한 미국의 최신 정책과 계획 소개 · 논의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국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 우주기업들의 상호 참여 ② 산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③ 우주 분야 공급망 탄력성 강화 ④ 지구 저궤도의 상업적 활용과 달 탐사 협력
11월 8일	이탈리아	<p>[한-이탈리아 정상회담] 中 ‘한-이탈리아 우주협력 양해각서 (M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탈리아 우주청 간의 평화적 목적의 우주활동 분야 협력 강화 · 협력분야: ① 우주과학, ② 우주탐사, ③ 지구관측 (특히 환경 모니터링 및 재난관리 분야), ④ SAR (합성개구레이더) 기술, ⑤ 상업적 네트워크 촉진 등

자료: 금융위원회,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무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